

다문화가정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학습교재 개발 방안

장미영(전주대학교)

1.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능력

2000년을 기점으로 취학연령에 진입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는 한국 교육의 현안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06년 4월 기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자녀 중 취학 연령대인 만 7세~18세는 17,287명으로 추정되며, 2007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13,445명이다. 이들의 85%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학교급별 현황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35.4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48.0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6		13,445	68.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www.moe.go.kr)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2020년경에는 다문화가정 2세가 전국적으로 167만 명에 이르러 전 국민의 3%에 육박할 것이고 농촌 초등학생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이 방치되거나 이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의 상당수는 한국말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소통능력의 문제로 또래집단과 어울리거나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을 뿐 아직까지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아래의 신문 기사는 이러한 실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문화 자녀' 교육 사각지대 방치]

▶ 대다수 언어소통 능력 등 또래에 뒤져...가구소득 낮아 개별적 교육 엄두 못 내

“학교 가기 싫어요.”

예천에 사는 초교 2년생 동혁이(가명·8)는 하루 종일 TV만 본다.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어서 언어발달이 더더 또래들과 제대로 대화도 할 수 없다. 기자가 몇 차례 묻자, 동혁이는 어눌한 말투로 “엄마는 색종이, 도화지가 뭔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엄마가 글을 모른다’며 많이 놀려요.”라고 했다. 담임교사는 “숙제와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온 적이 없고 간단한 받아쓰기도 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 언어장애 심각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을 엄마로 둔 아이들은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었다. 김천의 한 유치원 교사는 “다문

화가정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누가 좋아?’ ‘쉬하러 갈래?’ 정도의 쉬운 질문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과 어울려 6개월쯤 지나야 이 질문을 겨우 알아듣죠.”라고 했다.¹⁾

현재 50%가 넘는 다문화가정아동들은 부모의 낮은 소득과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아동들은 엄마 품에서 말을 배워야 할 언어습득시기에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어(母語)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취학연령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들은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습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와 같은 언어능력 문제는 학습장애로 이어져 기초 학력 미달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및 정서장애의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³⁾ 아래의 신문 기사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아동들의 언어장애 현상을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55% 언어능력 문제 심각]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언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008년 4월13일과 7월6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만 2~7세 자녀 47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검사를 1대1 면접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55%인 26명이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어린이의 부모 국적은 베트남(12명), 중국(11명), 필리핀(8명), 일본과 몽골(각 5명) 등 10개국이었다. 조사대상 중 학습지원이나 언어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26명(55%)이었고, 지속적 관찰이나 심리·지능검사, 사회성 증진이

1) 매일신문사, “다문화가정 자녀 ‘정신지체’ 만들텐가”, <매일신문>, 사설, 2007. 10. 24.

2)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연구』, 32, 61~83면.

3)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필요한 어린이도 12명(26%)이나 됐다. 정상범주로 분류된 어린이는 9명(19%)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언어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⁴⁾

스위스의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단계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0~2세 때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인지하는 1단계 감각운동기를 거쳐, 2~7세 때 언어를 습득하여 초보적인 사고 기능이 발달하는 2단계 전조작기를 맞이하게 되고, 7~12세 때 어느 정도의 논리적 조작을 통하여 구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3단계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 12세 이후에는 추상적인 사고나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추리가 가능한 4단계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지적 발달단계와 함께 도덕적 발달단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도덕적 발달단계란 사람들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개념화의 정도를 일컫는다.⁵⁾

피아제의 이론에 비추어본다면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능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 장애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기능과 도덕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부적응 내지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에 이 아동들의 언어능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동 당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하여 ‘교육’과 ‘치료’를 함께 하는 ‘언어치료’ 학습교재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 구성의 방향과 기반을 모색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는 일

4) 남호철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55% 언어능력 문제 심각”, <국민일보>, 2008. 8. 10.

5) Herbert P. Ginsburg, 등 저, 김정민 역,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학지사, 2006.

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와 달리 언어환경적 결함에서 오는 언어장애의 교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언어발달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다.

언어치료와 함께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생활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전문적인 언어치료 서비스이다. 그 결과는 대상 아동의 유창한 한국어 구사 실력과 함께 학습 능력의 신장을 통해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2. 교재 개발 방향 및 구성

2.1. 구어 중심적 의사소통

‘언어장애’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 볼 때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뇌과정의 결함을 지칭한다. 아동언어장애는 구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대뇌생리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지체되는 한편, 그 습득과정이 정상적인 과정과 많은 편차를 보이는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이다.⁶⁾ 이 글에서는 언어능력에만 결함을 보이는 단순언어장애아동에 초점을 맞춘다. 정신지체나 자폐, 청각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아동은 본고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동의 언어학적 발달단계를 고려했을 때, 보통 생후 10개월 정도에서는 음의 높낮이나 목소리의 억양 패턴을 변별할 수 있고 10~30개월에서는 ‘엄마’, ‘아빠’, ‘물’, ‘공’, ‘어부바’, ‘빠이빠이’, ‘부릉부릉’ 등 단일어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싫어’, ‘과자 주세요’, ‘멍멍이가 물어요’ 등의 다단어 문장의 이해 능력으로 확대되면서 갑자기 어휘 습득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2세 정도까지는 일주일에 3날말 이상을 습득하는 정도로 90%의 아동들이 어휘폭발기를 경험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다. 어휘폭발기가 끝나면 아동은 새로운 사물의 이름을 직접

6)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2002, 9면.

학습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추측하여 습득하게 되는 어휘습득전략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표현할 수 있는 어휘수가 50개 남짓 되면 아동들은 낱말들을 연결하여 문장의 형태를 만들고 차츰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구문적인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다.⁷⁾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장애는 바로 이와 같은 언어학적 발달단계상의 결합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로 말미암아 청화식 언어습득기간인 어린 시절 내내 구어 자극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언어 환경은 아동에게 있어 한국어 발음을 비롯하여 억양, 어휘의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언어치료 학습교재는 이러한 구어적 경험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1.1. 음운론적 언어치료

음운론적 언어치료는 주로 발음 훈련을 통해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고 정상적인 발음을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발음 훈련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조음점을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음점은 자음을 조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으로, 조음체가 접근하는 자리이다. 조음점은 윗입술, 윗니, 윗잇몸, 입천장 등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발음 기관을 말한다.

조음음운장애가 있는 아동은 표준적인 말소리에 대한 훈련을 통해 목표음을 학습하게 된다. 이 때 목표음은 공통적인 또는 대립적인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s)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음장애를 보이는 아동은 대체적으로 어떤 한 범주에 속하는 말소리만을 주로 내거나 아니면 어떤 부류의 음에 공통적으로 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음음운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변별 자질별로 구분된 단어 연습이 치료하기도 편리하고 동시에 한국어 교육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언어치료학습교재는 훈련 단어 목록을 변별자질별로

7) 김영태, 앞의 책, 30~45면.

분류하여 수록하는 한편, 교재를 사용하는 치료사나 아동의 보호자가 이러한 음운론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해 놓아야 한다.

(예시)

-단모음

- /ㅏ/ : 나-사-차-파
- /ㅣ/ : 비-이-피-키

-이중모음

- y-중모음 : 여자-여우-여섯-여왕
- w-중모음 : 귀-쥐-가위-키위

-자음

- 초성 자음 /ㄱ/ : 가시-가지-가위-가방
- 어중초성 자음 /ㄱ/ : 모기-아기-고기-딸기
- 종성 자음 /ㄱ/ : 목-턱-약-국

-불규칙 용언

- ㄷ불규칙 용언 : 단다-듣다-걷다-묻다
- ㅂ불규칙 용언 : 늡다-줍다-쉽다-무섭다

<조음음운장애 극복을 위한 조음점 분류>

목표음의 변별적 자질별 분류					
순	단계	내용			
1	기초	체인	단모음	/아/, /에/, /오/, /우/, /이/	
			이중모음	y-중모음	
				w-중모음	
			자음	초성 자음	
				어중 초성 자음	
				종성 자음	
		용언	동사	ㄷ불규칙 용언	
				ㅂ불규칙 용언	
				ㅅ불규칙 용언	
				ㄹ 불규칙 용언	
			형용사	ㅌ불규칙 용언	
				여 불규칙 용언	
				러 불규칙 용언	
				거라 불규칙 용언	
		너라 불규칙 용언			
		ㅎ불규칙 용언			
2	심화	문장	유성음 계열 문장		
			무성음 계열 문장		
			파열음 계열 문장		
			마찰음 계열 문장		
			파찰음 계열 문장		
			비음 계열 문장		
			측음 계열 문장		
			유음 계열 문장		

조음음운장애 극복을 위한 교육 내용은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변

별적 자질별로 공통점을 가진 단어를 한 단위로 묶어야 한다. 이러한 연습 목록의 조직화는 말소리를 내는 신경, 근육, 뇌 등의 신체운동적인 측면의 효과까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학습과 치료를 밀접하게 통합시킨 결과이다.

그런데 구어에서는 발음과 억양을 비롯하여 강도, 음질, 강세, 리듬, 장단 등 초분절적인 요소까지 훈련해야 유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말소리는 말소리의 연결체에 낱말의 뜻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감정과 태도까지도 섬세하게 실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⁸⁾

(예시)

분류	단어의 강약과 리듬		
단어	쇠고기	화장실	음식
장단	[쇠: 고기]	[화장: 실]	[음: 식]
강약	● ● ● 강 약약	● ● ● 약강 약	● ● 강 약
리듬	■ ■	■ ■	┘ ■

음운론적 언어치료에서는 언어의 초분절적인 요소 외에도 속삭임에서부터 큰 소리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나 목췌 소리, 거친 소리, 비음 등으로 음질을 변조할 수 있으며 모음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단 감각, 문장 끝의 올림조와 내림조 등 억양을 구별할 수 있는 인지가 선행되어야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를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의 강약을 구별할 수 있게 하거나 문장의 다양한 운율패턴을 훈련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릴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8) 이현복,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1998.

(예시)

분류	단어의 억양과 박자		
억양	수평 억양	중평	-네
		상평	ˉ네
		하평	ˋ네
	오름 억양	높오름 억양	ˊ네
		온오름 억양	/네
	이중방향 억양	낮 오르-내림 억양	ˆ네
낮 내리-오름 억양		ˋ네	
박자	기본형	↓	달
	머리형	■	시간
	꼬리형	■ ■	선수
	복합형	■ ■■	자동차

2.1.2. 어휘 · 의미론적 언어치료

음운론적 언어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익히는 어휘론적 언어치료가 이루어진다. 어휘론적 언어치료는 주로 반복적 문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그림이 조합되는 균형 잡힌 접근(balanced approach)방법이 필요하다.⁹⁾ 그림을 보고 자기 이름의 첫소리와 같은 단어를 찾아보는 것, 끝소리가 같은 단어들 모아보는 것, 재미있게 들리는 단어와 특이하게 보이는 글자를 찾아보는 것 등 균형 잡힌 접근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재 구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초급 한국어의 읽기 학습과 연계되는 의미론적 언어치료가 가능하다. 그것은 사물의 물리적인 유사성이나 공통된 기능을 토대로 범주적 어휘와 관계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연필과 종이, 치약과 칫솔, 숟가락과 젓가락, 책과 공책, 간다-온다, 여기-저기, 안-밖, 위-아래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다.

9) 이경우 외, 『유아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04, 29~30면.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아동이 발음하는 단어의 수가 많아지고 발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의 발화 안에서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락, 즉 토막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발화란 앞뒤에 쉼이 있는 말의 단위를 일컫는다. 하나의 발화가 더욱 작은 단락으로 나뉠 때, 그러한 단락을 ‘말토막’이라고 하는데 발화와 말토막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발화 → 말토막1(+ 말토막2+ 말토막3+……+ 말토막n)¹⁰⁾

의미론적 언어치료 단계의 교재에는 리듬이 실현되는 소리말의 단위로 발화 현상을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말토막과 발화의 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예시)

말토막 훈련	
순	/해/
1	/해와+달/
2	/해와+달이+된+오누이/
3	/해와+달이+된+오누이가+봄+여름+가을/
4	/아직잘+모르지만+언제+어떻게/
5	/전+정말+뭘가뵈지+모르겠어요/

2.1.3. 화용론적 언어치료

화용론은 언어적 또는 상황적 문맥에 따라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일컫는다. 이것은 아동들로 하여금 목적과 문맥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는 언어치료 단계로 고급과정에 속한다.

10) 이현복,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1998. 132~133면.

화용론적 언어치료에서는 유사성에 기초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유사성은 형태적 유사성, 음성적 유사성, 의미적 유사성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으로는 유추에 기초한 비유적 표현으로 나아간다. 유추는 확률적 내지 개연적 추리로 상당한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지적 인식 능력까지 개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유사성에 기초한 비유 훈련		
구분	유형	예시
비유	형태적 유사성	저는 눈처럼 하얀 생크림이 좋아요. 저는 포도같이 둥근 초콜렛이 좋아요.
	음성적 유사성	엄마! 수도꼭지 잠그세요. 물이 넘쳐요. 엄마! 젓가락 잠그세요. 젓이 넘쳐요.
	의미적 유사성	귀신이 무서워요. 영어가 무서워요.
유추	기능적 유사성	현관 열쇠는 자동차 열쇠와 같아요. 옷의 단추는 운동화의 끈과 같아요.
	구조적 유사성	할아버지 무덤 앞의 차례상은 부엌의 식탁과 같아요. 책상의 연필꽂이는 식탁의 수저통과 같아요.
	관계적 유사성	할아버지는 아빠의 아빠고요, 아빠는 저의 아빠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엄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엄마예요.

이상과 같은 음운론,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 기반의 언어치료는 초급 한국어의 말하기와 듣기 학습을 유도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언어치료를 위한 교재 내용은 동화나, 설화, 전설 등의 문학작품과 연계성을 갖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초등학교의 교실 용어와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아동 주도적 역할 배정

언어치료의 학습내용은 아동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아

동이 주도한다는 의미는 언어치료사의 소극적 개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아동을 언어치료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역할만 수행하도록 고찰시키거나 명령-수행의 위계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를 가진다.

언어치료의 목적은 아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먼저 익혀야 한다. 이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내용은 ‘나-전달법’으로 나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도 또한 ‘나는 _____해요. 왜냐하면 내가 _____을 하는데 누가 _____했기 때문이에요.’식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짜증이 나요.(언어치료사: 짜증이 났구나.)
내가 만화영화 보고 있는데, 엄마가 TV를 켜어요.(언어치료사: 엄마가 켜구나)
나는 심심해요.
나는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요.(언어치료사: 친구랑 놀고 싶구나.)

아동 주도적인 표현 방식은 특히 동작어에 대한 언어치료에 유용하다.

‘-마셔’(동작어)

치료사 : 철수! 주스 마실 거예요?

아동 : 마셔요.

치료사 : 누가 마실 거예요?

아동 : 저요, 철수요.

치료사 : 오늘 누가 무엇을 마실 거예요?

아동 : 저요, 철수가 주스를 마실 거예요.

치료사 : 선생님도 주스를 마실 거예요.

‘나-전달법’은 ‘너-전달법’과 반대의 개념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개방하도록 용기를 주게 된다. 이 방법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선생님-아동, 친구-친구간의 상호존중에 기초를 둔 의견교환을 목표로 한다. 언어치료의 관건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데에 있다. 아동의 언어치료는 상대방 누군가로부터 거부된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 주도적으로 역할을 배정했을 경우 상당수의 아동들은 다양한 감정에 반응하는 민감성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쉽게 얻게 된다. 아동의 주도적인 역할은 결과적으로 치료와 학습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고 자기주도적인 의사소통 자로서의 역할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3. 어머니의 실천적 참여 유도

아동들의 초기 언어습득 단계를 살펴보면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와의 교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구사력의 유창성이나 한국어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아동들은 엄마가 같이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그 자체로 큰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언어치료 학습교재 또한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즉 언어치료에서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대자를 상정하고 대응쌍이 있는 내용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 그 때 상대자를 엄마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동의 언어치료에는 어머니가 동반해야 한다. 특히 9개월에서 30개월까지의 아동은 어머니와 떨어져서 낯선 치료사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꺼리며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동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 놀이 친구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동반된 어머니는 언어치료 과정을 바라보는 관찰자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대역, 즉 반향어를 담당하기도 하고 화자 또는 청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언어장애아동들은 화자와 청자가 교대로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어치료를 위해서도 대응쌍이 있는 교재 구성이 필수적이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학교 입학을 전후로 더욱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한국어교육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동화책을 읽어주어야 하는지, 어떤 그림책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학교 준비물이나 학업 관련 상황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어치료교재에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보완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언어치료학습에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가족 문해와도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매우 낮은 문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언어치료를 받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문해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문해 모델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3. 언어치료를 병행한 한국어 교수 전략

3.1. 놀이화

기존의 언어치료 학습교재는 다분히 목표 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조음음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표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되는 단어를 수집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발음하게 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도록 했다. 예컨대 단모음의 경우는 ‘ㅏ’, ‘ㅑ’, ‘ㅓ’, ‘ㅕ’, ‘ㅗ’로 다시 분류한 후 ‘ㅏ’의 경우에 ‘차, 과, 사, 나, 창, 팔, 산, 자, 강, 탈, 삼, 잠’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발음하게 한다. 또는 훈련이 필요한 발음을 문장 속에 삽입하여 반복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시) /리/ 발음 연습

개구리는 파리를 먹어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그림을 그려요.
 기린은 목이 길어요.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다리미로 다려요.
 피리를 불어요.
 타조는 다리가 길어요.
 코끼리는 코로 먹어요.
 병아리는 노란색이에요.
 오리들이 걸어요.

이상의 예시는 각 문장별로 독립되어 있어 문장간의 연계가 없다. 이러한 교재 내용으로 말미암아 공간 언어치료사는 아동들에게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도 했다. 문장 훈련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문장들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학습을 마친 후에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 장면을 목격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세심하게 문장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치료는 주로 말소리 위주의 언어 훈련을 염두에 두되 놀이, 음악, 미술, 춤, 글쓰기, 그림책 등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과정지향적 교수 전략이 더욱 유효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치료를 병행한 한국어 교재 또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시1) 엄마는 호호호 웃어요.
 아빠는 하하하 웃어요.
 오빠는 히히히 웃어요.
 동생은 깔깔깔 웃어요.
 할머니는 해해해 웃어요.
 할아버지는 허허허 웃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웃고 있어요.

(예시2)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비가 솔솔 내려요.
비가 죽죽 내려요.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비가 이랬다저랬다 해요.

(예시3) 나는 귀뚜라미처럼 빨라요.
나는 파리처럼 조용해요.
나는 고양이처럼 자요.
나는 돼지처럼 먹어요.
나는 강아지처럼 귀여워요.
나는 소처럼 느려요.
나는 수퍼맨처럼 매일매일 변신을 해요.

(예시4) 날 보러 와요.
엄마 보러 와요.
친구 보러 와요.
장난감 보러 와요.
강아지 보러 와요.
TV 보러 와요.
비디오 보러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예시1)과 (예시2)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조음점 훈련을 하는 것이고 (예시3)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문장 패턴을, (예시4)는 리듬 훈련을 하기 위한 예시문이다. 이러한 예시문은 언어치료사나 아동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예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한다.

언어치료를 병행하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구는 책이다. 아동들에게도 최고의 장난감은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책 속의 그림과 문장은 교구 활용 못지않은 다양함과 활동성을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2. 주제 통합적 교수 전략

언어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소통의 완전성이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화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중심으로 실물, 그림, 포스터 등과 같은 실제 물체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 동화, 수학, 과학, 노래, 미술 등을 연계해서 영역 간에 연관된 활동이 서로를 보완하여 개념의 이해를 심화 시키도록 하는 주제 통합적 교수 내용과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제 중심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교재를 구성하려면 좀더 일관성을 끌어낼 수 있는 것 또는 학습 과목의 내용과 상호 연결되는 교과 친화적인 내용을 찾아야 한다.

순	주제(대분류)	주제(소분류)	교육 내용	교수 전략
1	생활 주제	동물	내가 좋아하는 동물	나-전달법
2			집에서 기르는 동물	그림 제시법
3		곤충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곤충	브레인스토밍
4			해로운 곤충	스키마 활용법
5			이로운 곤충	스키마 활용법

뿐만 아니라 교사는 아동들로 하여금 어떤 언어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시1) 치료사: 여기가 어디예요?

아동: 필리핀!(×)

치료사: (교정) →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예시2) 치료사: 필리핀 날씨는 어때요?

아동: 더워요!(×)

치료사: (교정) → 필리핀 날씨는 더워요.

(예시3) 치료사: 이게 뭐예요?

아동: 바나나!(×)

치료사: (교정) → 이것은 바나나예요.

(예시4) 치료사: 바나나는 추운 지방에서 자랄까요? 더운 지방에서 자랄까요?

아동: 더운 지방!(×)

치료사: (교정) → 바나나는 더운 지방에서 자라요.

이와 같이 완전한 문장으로 구사된 내용은 그 다음 순서로 앞 문장과 뒤 문장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여 맥락을 알게 해야 한다. 위 4가지의 예시를 연결하면 ‘필리핀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바나나가 자란다.’는 맥락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에 담긴 학습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어서 한국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교수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하기까지를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병행하는 한국어교육을 수행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장애의 기간이 길수록 장애는 심화되기 마련이다. 장애 형성 기간과 동일하게 치료기간 또한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장애아동의 언어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가 선진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려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으로 살아 온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숍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초대 이야기’가 있다. 이 우화는 식

사다운 식사를 하게 하려면 음식의 재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먹기 좋은 그릇인지 아닌지 그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도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맞춤형 서비스의 실천적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차세대 우리 사회의 동력이다.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며 이들이 겪는 장애는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아동의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그 배려의 깊이는 곧 우리 삶의 깊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참고 문헌〉

- 강위영 외(2005), 『발달장애 이동을 위한 언어·행동치료의 실제』, 교육과학사.
국민일보, “다문화가정 자녀 55% 언어능력 문제 심각”, <국민일보>, 2008.
8. 10.
- 김두라(2006), 『재미있는 언어치료』,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장애아동연구소.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김재은(1992), 『아동의 심리치료』, 배영사.
매일신문사, “다문화가정 자녀 ‘정신지체’ 만들텐가”, <매일신문>, 사설,
2007. 10. 24.
- 배소영(1987), “정상 말소리 발달(I)”, 『아동의 조음장애 치료』, 한국병리학회.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
원,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 이경우 외(2004), 『유아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이상복 외(2002), 『유·아동기 행동 관리』, 대구대학교출판부.
이현복(1998),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장미영(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한국어교육』, 제17-3호.
- 장미영(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글솜대.
정영숙 외(2003), “아동의 발달장애와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 교환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 연구”, 19(1).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최성규(2002), 『언어장애아 교육』,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병리학회 편(2003), 『아동의 조음장애 치료』, 군자출판사.
Herbert P. Ginsburg, 외, 김정민 역(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학지사.

A plan to develop a learning material of language treatmen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ang, Mi-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direction of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learning material for 'language treatment' which will be used as an 'education' and 'treatment'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language disorder. Language treatmen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ill be a part of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sidering correction of language disorder as well as language development which is different from language treatment for normal children. The result will be fluent Korean language and improvement of learning ability.

Language disorder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omes from a defect in the course of a linguistic development. The language environment in the childhood which causes lack of spoken language contact due to the mothers without fluent Korean leads to the basic problem with pronunciation, accent and vocabularies of Korean language. The learning material for language treatment has to consider

and recover the lack of experience of spoken language.

Spoken language needs the training of pronunciation and accent as well as suprasegmental features such as strength, tone quality, rhythm, length. It is important to find the point place of articulation in the pronunciation training. Besides,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children to express their feelings until they recognize the strength adjustment from whispers to shout, the change the tone quality from husky, rough to a nasal, the length control of vowels and accent such as high or low tone. It aims at fluency in Korean language to learn the strength of words and paragraphs or to learn various patterns of rhythm in the sentences. The process of language treatment of phonology above mentioned is followed by that of lexicology which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sounds and learning the meaning. This needs a balanced approach connecting repeated sentences with expected pictures. It is important for the balanced approach to make learning materials to connect the sense of sight with that of hearing such as looking for the same sound of one's first name by watching a picture, words having the same sound at the end or words sounding funny and looking unusual etc.

The next step is the language treatment of semantics associated with elementary level of Korean language reading. It is to learn categorized vocabularies and related words based on the similarity or common function of things, for example, pencil and paper, toothpaste and toothbrush, spoon and chopsticks, book and note, go and come, here and there, inside and outside, up and down.

The language treatment of pragmatics is the next. Pragmatics is the functional side of language understanding or expressing the language according to the context. It is categorized as a high level of language

treatment by teaching children how to use words properly considering the purpose and context and how to understand other people's intention. As I mentioned above, the language treatments based on phonology, lexicology, semantics and pragmatics lead to the study of speaking and hearing in the elementary Korean language. Therefore it will be desirable to make a material for the language treatment containing contexts which are connected to a fairy tale, a traditional tale or a folk tale and further to the expressions used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The contents of the material for language treatment should be decided on the initiative of children. It doesn't mean that the speech therapist has to play a passive role. We are just cautious of the situation pu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ch therapist and children to that of question-answer or order-obey.

If children play an active role, most of them easily achieve sensitivity to various feelings and ability to express it. It makes generalization more easily and facilitates their role as communicators.

Looking at a child's initial language learning stage, one may realiz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ld and his mother who brings up him influences a lot on the language skill. A child is satisfied with his mother playing with him and reading a book for him regardless of the level of the mothers' fluency in Korean language.

It is preferable for a mother to be with the child in the language treatment for him. In this case, the mother plays a counter actor, ie., to response, tell or listen to the child rather than just an observer beside him. As children of language disorder normally don't understand that the teller and the listener take turns talking, it is essential to make a material for the language treatment containing the counter actor.

The ultimate purpose of language treatment is a perfect communication. For doing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teaching contents and strategy of the subject combination by using a real thing, picture, poster to fully understand the subject expressed with a word or sometimes by connecting culture, a fairy tale, mathematics, science, music and art with the subject to understand the concept. We have to find something academic leading to consistency or connecting with the contents of the material in order to make the material with the subject-oriented contents.

It would not be easy to practic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arallel with language treatment against the children of language disorder. The longer the period of disorder, the deeper the disorder itself and of course the longer the treatment needed. To establish the advanced multi-cultural society, we have to provide the social minority with the customized service.

There is a story of 'invitation for a meal between a fox and a crane' in Aesop's

fables. It points out of the necessity of the customized service considering not only materials of the meal but also the container.

Childre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ll be the main engine of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society. Their problem will become Korean society's problem and their disorder will directly lead to the barrier preventing from the progress of Korean society. How deeply we can consider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with a language disorder in order to treat them is closely related to the depth of our lives.

Key Words : 언어치료(language treatment), 균형 잡힌 접근(balanced

approach), 다문화가족자녀(childre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맞춤형 한국어교육(the customized korean education), 주제통합적내용(the subject-oriented contents)

이 논문은 2009년 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